

법적소송 마무리·상업지역 확대 반발 해소가 관건

15년 표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이번엔 제대로 될까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공익시설 개발'이 출발점이다. 어등산 조성 사업이 꼬인 것도 기본 원칙을 어기면서 시작됐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 광산구 운수동 일원 273만㎡부지에 2015년까지 3400억원의 민간투자를 받아 테마파크와 특급·가족호텔, 체육시설(골프장 27홀) 등을 만들겠다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익 시설'로 골프장 27홀(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이 지역은 1951년부터 44년간 포사격장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당시 삼봉건설(주)어등산리조트(이름으로 민간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이후 광주도시공사로 내세워 2008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당시 전체 사업부지 273만㎡ 가운데 사유지 142만3000㎡(주민 297명)에 대한 토지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71만8512㎡를 보유한 89명의 주민이 협의매수를 거부했고, 시는 공익성을 들어 조지수용 절차를 밟았다. 이후 지역건설업체의 침체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실제 사업자가 삼능→금광→모아→금광으로 사실상 4번이나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된다.

(주)어등산리조트(금광기업)는 2012년 5월 1100억원을 들여 골프장만 완공한 뒤 '테마파크' 등을 지을 여건이 안된다. 골프장만 우선 개장하겠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법원은 골프장을 우선 개장하는 대신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 수익금 일부도 환원하는

골프장만 개장하고 멈춰서

사업자만 수차례 바뀌어

광주시 각계 의견 수렴 나서

코로나 투자 위축도 걸림돌

등의 강제결정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광주시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놓고 당시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돈 안 되는' 테마파크 개발사업만 시에서 떠안게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광주시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어등산 골프장 선(先)개장'을 승인하는 대신,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어등산 유원지(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은 이후 진척이 없었다. 사업참여를 검토한 일부 민간 업체들이 '돈 되는 사업'인 골프장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테마파크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며 포기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15년 10여년 간 장기 표류하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민간개발 방식을 토대로 숙박시설은 축소하고 상가시설은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공익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결국 돈 되는 골프장 선개발을 방지하고, 선개장까지 승인해 준 광주시의 어של픈 행정이 어등산 개발사업 표류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7기 들어서도 호반과 서진건설 등이 사업 승계에 뛰어들었지만, 실패했다. 광주시와의 협상과정에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개발 방식이나 투자금, 수익성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결렬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은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서진건설과의 법정다툼은 별개로 하고, 다시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엔 개발 업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지역도 더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어등산 개발 사업자를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의 법적소송을 마무리

해야 하는데 개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일부 시민단체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데 앞선격으로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도 큰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자칫 어등산 개발사업이 개발은커녕 지역사회의 갈등만 유발하고, 행정력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애초 취지는 퇴색했지만, 현 시대에 맞는 광주만의 색깔을 갖춘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 지경 되도록 뒤흔었다" 여권서 커지는 외교안보라인 쇄신론

박지원 "원로 오찬서 교체론" 청와대는 언급 피하고 신중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쇄신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수습하려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안보실부터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는 외교안보라인 교체설에 대해 신중한 태도지만 소속 의원들은 하나둘씩 쇄신론에 힘을 실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가급적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인민홍철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분위기가 쇄신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홍익표 의원도 "외교안보라인에서 이 상황 자체를 안이하게 본 측면이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미국 입장에 대해 오판했다"며 "외교안보라인 전체 재배치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분야 원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외교안보라인 교체론이 제기됐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박지원 전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대북전단 문제는 현행 법으로도 막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를 사실상 방지했고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전

반적인 판단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전했다.

반면,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이다. 전란 외교·안보분야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북전단 관리 등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외교·안보라인 교체 제의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일부 참모들 사이에선 안보실 쇄신에 일부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남북관계 위기에는 통일부뿐 아니라 안보실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도 물밑에서 흘러나온다. 이미 정의용 안보실장이 정부 출범 후 3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터라 조만간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을 때 대북 라인을 한꺼번에 몰락이 아닌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정 실장을 교체한다면 북한의 공세에 밀려 인사를 하는 것이냐는 논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통일부 장관·대북특사 하마평... 남북관계 풀기 임종석 조기등판 주목

임 "민간 영역 활동 계속할 것"

후임장관 인인영·우상호 거론

한반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 들면서 장외의 '블루칩'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를 떠난 뒤, 지난해 11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현재는 남북경제문화협력단(경문협)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제도권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 관계가 크게 악화되자 임 전 실장은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며 정국의 중심에 서고 있다.

임 전 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을 주도하며 86세대의 상징이 됐다. 특

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임 전 실장이 민간 영역에서 통일운동에 매진하다가 한반도 평화의 성과를 창출한다면 2022년이나 2027년 대선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거론됐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됨에 따라 임 전 실장의 현실 정치 재개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입각설에 거리를 두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 영역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문협은 지난 15일 정례회에서 남북 상황을 놓고 논의했으며 임 전 실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

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의 거취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선 임 전 실장이 대북 특사 등으로 남북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측과의 소통과 신뢰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과 실행력을 갖춘 새로운 통일부 장관 카드로 임 전 실장이 적격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오 늘은 재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여더라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비상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의 사퇴로 공

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임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뒤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교체하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김 장관이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궁극적으로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할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문제에 정통하면서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의 임명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치권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민주당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영 의원과 우상호 의원 등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주자들도 차기 장관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